

엄마의 기도 (교회설립 40 주년을 감사드리며)

민경구 장로

윙윙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음과 함께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소리에 일요일 아침 단잠을 깬 나는 벽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엄마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무슨 기도를 하시나 궁금하고 기도중인 엄마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잠든 척하고 누워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소리조차 죽이며 온 신경을 엄마의 기도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다.

엄마의 기도는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오직 나를 위한 기도였다. 교회에 나가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미국생활에 빨리 잘 적응하게 해 주시라고...

밖에서 빵빵하는 차량경적소리에 엄마는 급히 일어나서 가방을 챙겨 나가셨다. 밖에 엄마를 픽업하기 위한 교회의 집사님 내외분이 오신 모양이었다. 엄마가 나간 후, 일어나 창문을 통해 집사님 차에 몸을 싣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딱딱해졌다.

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 준비중인 봄에 부모님을 좇아 미국 볼티모어시에 큰 가방 두 개를 들고 이민을 오게 되었다. 공항에서 나를 만나 껴안고 흐느끼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매형차에 실려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매형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스토어 윗층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나는 짐을 풀어놓기가 무섭게 버스를 타고 그로서리 일을 다닌 것이다.

하루에 12시간씩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 내가 가지고 왔던 이민생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살기 바빴던 나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구입한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주위에 사시는 집사님이 일요일이면 엄마를 픽업하여 주셨다.

엄마의 기도소리를 들은 그날 이후 나는 엄마를 교회에 태워드리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늘 교회에 출석하라고 나에게 권했지만 나는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출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 때 당시에 나는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만 들어가 예배드리는 곳이지 나같이 죄인인 더럽고 추잡한 사람은 교회에 다닐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교회출석을 미루는 나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밤 친구들과 만나 밤새도록 당구를 치고 주일 아침에 들어온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엄마를 교회에 모셔다 드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너무 피곤해 잠이 잠간 들었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창문을 내리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고 같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해서 권사님 손에 이끌려 난생처음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예배시간에 새신자로 나를 소개하였고 나는 그날 이후 몸이 피곤해서 예배시간에 졸지언정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의 믿음은 조금씩 더 더터워지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고 믿음없는 자가 장로로 임직하던 날, 누나가 나에게 다가와 하던 말이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좋아하겠네. 우리 막내가 장로가 돼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성도를 섬기는 장로가 되기까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아내와 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있다.

먹고살기가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 혼한 여름휴가도 한 번 다녀오지 못했는데 어느덧 막내가 훌쩍 다 커버렸다. 삶은 후회회 연속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나의 인생,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후회없는 삶을 살고 싶다.

끝으로 우리 엄마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면 나를 대신해 어김없이 교회로 라이드를 해 주신 집사님 내외분과 나를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